

코스피	코스닥
2579.48	729.59
(+5.68)	(+6.78)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2.281	1397.85
(+0.028)	(-0.15)



“AI육성·규제혁신 등 성장추진 동력 집중 지원해 달라”

이재명 만난 경제 5단체장

韓日 경제협력 통해 ‘물세터’ 도약
해외인재 유입·서비스 수출 확대
정년 연장 등 고용제도 개편 건의
추 “민간역량 믿고 정부 지원할 것”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 5단체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만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규제 혁신 등 성장 추진 동력 분야에 집중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무역협회(무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경제5단체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초청 경제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제5단체는 조기 대선으로 인한 촉박한 선거 일정을 고려해 이번 간담회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 비전을 청취하고, 대내외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경제계의 목소리를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 경제단체 주관의 대선후보초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명 후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진영 기자 son@

행사는 후보자의 비전을 듣는 강연회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의 목소리를 대선 후보에게 전달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단체별 제언 시간에 ▲한·일 경제협력 ▲‘해외인재 유치’ ▲서비스 수출 확대 등 세 가지 성장모델을 제안했다.

최태원 회장은 “한·일 경제협력을 통해 시장의 크기와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며 “한국과 일본은 현재는 글로벌 질서를 따라야 하는 룰테이커(rule-take

r, 규칙을 따라가는 나라)의 처지이지만 경제협력으로 더 큰 경제권으로 도약한다면 룰세터(rule-setter/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소와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에너지 및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일 경제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인재유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인구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해외 인재를 유치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우리 인구의 10%인 500

만명의 해외인구를 유입하면 생산 인구가 늘어나고 내수 기반을 넓히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분야 수출과 관련해선 상품수지만 갖고 경제를 지탱하기 어렵고, 본원 소득수지도 수익성이 크게 나도록 ‘전략적 해외투자’가 중요하다”며 “K-컬처를 체계화·산업화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식재산권 수출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주 4.5일제 시행 논의 ▲재계의 규제 완화 요구 ▲법정 정년 연

장 등을 제언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경제를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안타깝다”며 “가장 중요한 일은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경제 살리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 하는 역할”이라며 “전통 산업들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산업 전환에 충실해야 하고 정부가 이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는 “정년 연장 문제는 노사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산업,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니 차등을 두고 단계적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규제완화와 관련 “수요자 입장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여러분이 제시해 달라”며 “행정 당국 입장에서 자기들이 편해 지려고 만든 규제가 많은데 수요자, 현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제5단체는 성장추진 동력(AI육성, 규제혁신, 에너지정책, 탄소중립, 기업가정신), 새로운 산업의 이식(신사업, 서비스산업, 스케일업), 경제영토확장,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제고(자본·금융, 인력, 노동·안전, 산업재생) 등 4대분야 14개 아젠다를 담은 제언집을 이 후보에게 전달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CJ제일제당, 日 냉동만두 공략 본격화

1000억 투자, 만두 생산기지 신설
9월부터 ‘비비고 만두’ 생산·공급

CJ제일제당의 글로벌 식품 사업 확대 전략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미국·유럽·호주에 이어 일본 현지에 대규모 식품 생산기지를 신설하며 ‘글로벌 리딩 컴퍼니’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일본 치바현 키사라즈 시 ‘카즈사 아카데미아 파크’ 내 축구장 6개 크기 넓이의 부지(4만2000㎡)에 약 1000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8200㎡ 규모의 만두 생산공장을 신축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7월 완공 후 9월부터 ‘비비고 만두’ 생산을 시작해 일본 전역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투자는 급성장 중인 일본 냉동만두 시장을 본격 공략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일본 냉동만두 시장은 연간 1조 1000억원 규모로 그중 ‘비비고 왕교자’와 유사한 교자류 제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신공장에서는 기존 주력 제품 외에도 조리 편의성을 강조한 신제품 출시가 예



CJ제일제당의 일본 치바 신공장 조감도

/CJ제일제당

정되어 있어, 제품군 확장을 통한 시장 선점이 기대된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최근 일본을 방문해 “현지에서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한류 흐름은 K-푸드 확산의 결정적 기회”라며, “현지화 전략과 글로벌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 글로벌 리딩 컴퍼니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J제일제당은 일본 시장에서 ‘비비고 만두’ 외에도 냉동김밥과 소스 제품 등을 이온(AEON), 코스트코, 아마존, 라쿠텐 등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 중이다. 특히 일본에서 최초 출시된 ‘비비고 김밥’은 2023년 한 해 동안 약 250만 개가 판매되며 큰 반응을 얻었다. 하반기부터는 치바 공장의 가동을 통해 생산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CJ제일제당의 해외 식품사업은 지난 5년간 큰 폭으로 성장했다. 2019년 3조 1540억원이던 해외 식품 매출은 2024년 5조 5814억원으로 77% 증가했으며, 전체 식품 매출 중 해외 비중도 같은 기간 39%에서 49%로 확대됐다

지난해 해외 매출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지난해 주력한 ‘K-푸드 신영도 확장’이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북미, 유럽, 호주 등 주요 권역에서 성장을 이어갔고, 글로벌전략제품인 김치(38%), 냉동밥(22%), 만두(18%)의 해외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2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

LG전자, 인도서 국민 브랜드 다진다

스리시티서 新가전공장 착공
신흥시장 수출 거점으로 활용

LG전자가 인도에서 세 번째 가전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현지 생산력을 강화해 인도 ‘국민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인접국까지 공급망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8일(현지시간) 인도 남동부 안드라프라데시주 스리시티에서 신공장 착공식을 열었다. 총 6억달러(약 8380억원)가 투입되는 이 공장은 부지 100만㎡, 연면적 22만㎡ 규모로 조성된다.

스리시티 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에어컨 150만대 ▲세탁기 85만대 ▲냉장고 80만대 ▲에어컨 컴프 200만대 수준이다. 2026년 말 에어컨 생산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세탁기·냉장고·에어컨 컴프 생산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 인도 내 ‘국민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아시아,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신흥시장 수출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인도는 세계 1위 인구 대국이자 경제성장률이 높고 가전 보급률이 낮아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LG전자는 기존 노이다·푸네 공장만으로는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남부 거점인 스리시티에 추가 생산기지를 구축하게 됐다.

스리시티는 첸나이 인근 인도양 연안에 위치해 수출에 유리하고, 남부 지역 공급에도 적합하다. 프렌치door 냉장고, 드럼 세탁기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생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채식 위주 식문화에 맞춘 ‘컨버터블 냉장고’, 전통의상 ‘사리’ 전용 세탁 코스 등 현지 생활양식에 맞춘 제품도 강화하고 있다. 브랜드샵 700여곳, 서비스센터 900여곳, 12개 언어 상담 등 서비스 인프라도 갖췄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도는 2027년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며 “제조, 혁신, 인재개발 등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통해 인도가 세계 경제 핵심 축으로 도약하는 여정에 기여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이혜민 기자 hyem@



▲민주 “국민의힘, 한덕수 옹립 위해 강제 단일화 역모… 막장 사극”
▲김상욱, 국회 탈당 선언… “이재명·이준석 만나고 싶다”
/사진 뉴스스

▲정청래 “‘조희대 특검법’ 발의해 내일 처리… 탄핵도 살아있는 카드”
▲김민석 “한덕수, 조순 케이스 될 것… 후보 등록 못하고 주저앉을 가능성 커”

▲한동훈, 당권 재도전 시사 “실 생각 없다… 계속 해 보겠다”
▲이주호 대행, ‘윤석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증언 검사장 징계 재가